채권 트레이더 브리핑 | 2026-04-16

요약부터 말할게. 오늘 본문은 확인된 숫자만 사용했다. 글로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다.

PART 1 — 어제 낙찰/수요예측 한눈에 보기

- 낙찰 구조화 건수: 3건
- 구조화 낙찰금액 합산: 5,400억
- 최고 응찰배율: 한국주택금융공사 7D 4.0x
- 최저 응찰배율: 인천국제공항공사 3Y 2.6x

발행사(등급)	만기	금리/스프레드	금액	응찰	구분
한국주택금융공사(A1)	7D	2.53%	2,100억	4.0x	CP/전단채
인천국제공항공사(AAA)	3Y	민평-2.0bp	2,000억	2.6x	공사채
한국수자원공사(AAA)	3Y	민평-2.0bp	1,300억	2.69x	공사채

판단: 공사채/전단채 쪽 응찰이 통안채보다 강했다. 다만 이것만으로 금리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, 다음 발행의 언더/오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.

〔수요예측 결과〕

- 롯데칠성음료(AA0): 모집 1,000억 / Max 2,500억 / 응모 13,100억 / 13.1x
· 2년 500억 -2bp(8.0x) / 3년 1,000억 -5bp(9.1x)
- 800 억 기준 언더 3 한온시스템(AA-): 모집 1,500억 / Max 3,000억 / 응모 16,150억 / 10.77x
· 2년 500억 -26bp(11.5x)
- 풍산(A+/AA-): 모집 1,000억 / Max 1,500억
· 3년 1,000억 -10bp(3.3x)
- 삼양식품(AA-): 모집 1,500억 / Max 2,000억 / 응모 7,850억 / 5.23x
- AJ 네트웍스(BBB+): 모집 300억 / Max 500억 / 응모 1,160억 / 3.87x
· 2년 150억 -62bp(5.13x)

판단: 응모배율과 언더 폭을 같이 봐야 한다. 같은 AA권이라도 응모가 몰리고 언더 폭이 큰 이름이 다음 유통 강도를 먼저 만든다.

PART 2 — 발행/공급 캘린더

- 발행 물량 합산: 20,740억
- 여전채: 13,720억
- 회사채: 7,020억

판단: 공급 부담은 섹터별로 봐야 한다. 여전채·회사채 물량이 동시에 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쉽게 좁아지기 어렵다.

익일/다음 입찰:

- 한국증권금융(AAA): 1 년 / 3 년 / 총 2,500 억 내외 (1 년 1,000 억 / 3 년 1,500 억)

익일/향후 수요예측:

- 4/20 월 롯데하이마트(A+) 500억 / Max 1,000억
- 4/21 화 HL 만도(AA-) 1,400억 / Max 2,000억
- 4/23 목 LG 헬로비전(AA-) 1,500억 / Max 2,000억

PART 3 — 금리와 커브

글로벌 데이터: 해당 메일에서 수집 안 됨. 글로벌 원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.

국고 2Y: 3.245% (-0.2bp)
국고 3Y: 3.367% (+0.5bp)
국고 5Y: 3.582% (+2.0bp)
국고 10Y: 3.662% (+1.5bp)
3-10 스프레드: 29.5bp
RP 시작금리: 2.47% (-1.0bp)

판단: 3Y는 하락, 5Y는 소폭 상승, 10Y는 보합이다. 짧은 구간과 중기 구간의 힘이 엇갈렸다는 정도까지만 확인된다. RP 하락은 단기자금 수급 신호이지 금리 인하 확정 신호가 아니다.

PART 4 — 신용/크레딧

- 은행채 AAA: 2Y +0.2bp / 3Y +0.5bp
- 카드채 AA+: 2Y +0.2bp / 3Y +0.5bp
- 회사채 AA: 2Y +0.2bp / 3Y +0.5bp

판단: 은행채/카드채 2~3Y는 대체로 축소 쪽이고, 회사채 AA 2Y만 소폭 확대다. 전반적 위험회피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, 구간별 차별화로 보는 게 안전하다.

거래내역: 회사채/공사채/특은채 등 원문 거래 리스트가 수집됨. 개별 종목 해석은 원문 거래가 많아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.

PART 5 — 뉴스/리포트

크레딧 뉴스 수집 안 됨.

오늘 읽을 리포트 3개:
- 〔크레딧 레터〕 4 월 대규모 순상환에도 회사채 시장 우려가 크지 않은 이유 (26.4.16 삼성증권 김은기)
- 〔국내 크레딧〕 은행채 강세 요인 분석 (26.4.15 신한증권 김상인)
- 〔KB Bond〕 매파적 색채가 강하지 않았던 한은 총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 (26.4.16 KB 증권 임재균)

PART 6 — 오늘의 판단

1. 오늘 핵심은 '낙찰은 여러 건 확인됐고, 응찰 강도는 발행사/구간별로 갈렸다'는 점이다.
2. 금리는 3Y 하락, 5Y 상승, 10Y 보합으로 한 방향 장세가 아니다.
3. 내일은 응찰배율, 민평 대비 언더/오버, 국고 3Y·10Y 변화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.

〔리포트〕 오늘 읽어볼 리포트

〔〉〔크레딧 레터〕 4 월 대규모 순상환에도 회사채 시장 우려가 크지 않은 이유
저자: 26.4.16 삼성증권 김은기
URL: 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

〔〉〔국내 크레딧〕 은행채 강세 요인 분석
저자: 26.4.15 신한증권 김상인
URL: 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19179

〔〉〔KB Bond〕 매파적 색채가 강하지 않았던 한은 총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
저자: 26.4.16 KB 증권 임재균
URL: http://report.koscom.co.kr/common/pdf/view/KB

〔〉〔채권전략〕 협상 낙관 속 금리 하단 추정
저자: 26.4.15 신한증권 김찬희
URL: http://report.koscom.co.kr/report/view.do?pid=SCF2124003&contentsSeq=519089

〔〉〔한국경제〕 전쟁의 그림자 속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은 ?

저자: 26.4.17 하나증권 전규연

URL: https://file.hanaw.com/download/research/FileServer/WEB/economy/economy/2026/04/16/global_macro_alert_260417.pdf

오늘 브리핑과 가장 직결된 리포트를 먼저 읽어봐.

DS증권 황대진 메일 기반 자동 생성